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행복 동시에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

## 종교적 실용서로 거듭나는 21세기 종교 서적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하느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 ‘의지처’를 찾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성찰처’인지도 모른다. 종교적 성찰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종교의 첫 번째 역할일 것이다.

글\_이주연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내면의 성찰은 커녕 가족과 제대로 얼굴 마주할 시간조차 없는 각박한 현대인에게 ‘종교 서적’은 또다른 의지처와 성찰처가 되어준다. 이제 종교 서적은 일방적으로 교리나 법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를 살피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함으로써 영성을 돌보는 ‘현장성’을 높였다. 탁낫한의 《화》나 조엘 오스틴의 《공정의 힘》은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읽은 종교 서적이다. 이런 변화의 뒷면에는 대중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종교 서적의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다.

### 기독교, 종교적 실용성 높여 잠재적 독자층까지 흡수

2006년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집계에 의하면 《공정의 힘》(두란노)은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다. 《내려놓음》(규장)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디모데)도 모두 50위 안에 들었다. 기독교 서적의 약진은 최근 들어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2001년 출간된 《아베스의 기도》를 시작으로 일반인들까지 ‘흡수’하는 베스트셀러 서적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공정의 힘》의 경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쪽에도 몇 번씩 등장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서적이다. 그러나 이 책은 조건 없는 사랑이나 회개를 강조하는 대신 삶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 실용서다. 일반인, 특히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끌며 ‘공정 파워’를 전염시키기 위한 필독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두란노 주은선 번역서 팀장은 “블루오션의 핵심 전략인 ‘비고객을 고객화’ 하는 일에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지닌 자기계발서의 성격이 기독교 책을 읽지 않았던 잠재적 기독교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려놓음》은 저자가 자기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통해 신적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기독교 독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신의 인도를 통한 극적인 반전으로 감동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 서적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고 있는 종합출판사들이다. 기독교 서적이 대형 베스트셀러의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종합출판사들은 기독교 서적 시장에 대거 진출했다. 이들은 기독교 출판 특유의 종교색을 줄이면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기독교 출판계가 발굴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 즉 경제·경영, 인문, 역사, 에세이 등으로 출판 영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최근의 기독교 서적은 현장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웬만한 전문서적 못지 않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은 12명의 석학이 ‘신앙이 이성적으로 변증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문학 서적으로 인문학 독자에게도, 기독교 독자에게도 새로운 관점의 책이다. 《신뢰의 법칙》(21세기북스)이나 《예수처럼 경영하라》(청림)는 각각 자기계발서와 경제·경영서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담긴 자기계발과 경영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기독교 서적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 홍성사의 김미영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기독교 서적을 찾는 독자들이 주로 기독교에 깊이 헌신한 사람들 내지 기독교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요즘은 기독교 사회의 주변인 내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주변 독자들까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볼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변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은 “종교적 내용을 넘어 참된 가치와 행복을 일반인에게도 심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전도사는 “이런 기독교적인 처세서나 실용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독교 서적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지만 잠재적인 기독교 독자층을 수용하면서 기독교 서적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 불교, '마음공부'와 '명상' 현대인의 생활 속으로

요즘 불교 서적의 가장 큰 화두는 '마음공부'와 '명상'이다. 경전 해석이나 법전의 강설(講說), 고승대덕의 범문집과 같이 '신도용' 읽을거리 위주였던 불교 서적은 1990년대 후반 등장한 틱낫한과 달라이 라마 등의 책을 기점으로 '현대인의 생활불교'에 접근한 책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틱낫한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김영사) 《화》(명진출판) 등은 불교 수행의 장점인 명상법을 현대화해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생활불교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김영사)은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행복'을 내세우며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는데 불교의 승려가 아닌 세계의 스승으로서 달라이 라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책들은 불교인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랜 세월 우리에게 문화적 차원에서 익숙한 불교가 각박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일종의 '심리치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법정의 《무소유》를 비롯한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있기는 했지만 2000년 들어 '마음공부'와 '명상'을 다룬 책들이 불교 서적의 '대중화'에 힘을 실게 되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웰빙 바람은 전통적인 방식의 불교 서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불교 서적 전문 출판사들이 경전 해석이나 수행 방법을 다룬 서적을 출간할 때 대중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불교 전문 출판사인 불광출판 사기순 부장은 “내면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독자들의 요구가 불교 입문서, 수행서에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 수행기》(불광출판) 《박희선 박사의 생활참선》(정신세계사)과 같은 책은 불교 수행의 일종인 참선(參禪)이 일반인들에게 명상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면서 '참선'을 대중적 차원에서 접근한 책이다.

불교 사상이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쪽에 가깝던 고승대덕의 범문집도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살피는 쪽으로 변화했다. 《가장 행복한 마음공부》(시공사) 《삶의 나침반》(열림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장정각) 등은 범문집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찾는 '삶의 평화'에 대한 철학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얼마 전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범문집 《정진-행복을 부르는 힘》을 기획, 편집한 랜던하우스코리아 오창준 씨는 “저자인 스님이 평상시 신도들에게 한 법문을 모은 것이라 생활불교, 도시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불교적인 사상이나 가르침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만 '생활 속의 반성'이나 '마음 다스리기' 같은 현실적, 실천적 사항들을 다루다보니 일반 독자들에게도 어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종교 서적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현대인의 삶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성공' '자기계발' 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영성' '평화' '행복' '정신건강'과 연결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것은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행복을 동시에 얻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을 말해준다.

한 종교학자는 종교 서적의 본질과 딜레마를 이렇게 정리했다. “예수의 경영이나 ‘붓다의 요가수행’도 궁극에 이르면 ‘내면의 성찰’을 통한 영성수행이 관건이다. 종교 서적의 형식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제대로 표현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바로 출판사와 편집자의 과제가 될 것이다.” **▶**